

2027  
특강  
문학

## 2027 특강 국어 문학 1. 개념학습 5강 | 길삼봉던 직전 보강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!

### AI 직전 보강



선생님, 이번 지문인 희곡 「길삼봉던」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문제로 출제되나요?

이번 단원에서는 크게 **역사적 사건(기축옥사)**이 작품과 어떻게 결합하여 주제를 드러내는지 묻는 문제와, 등장인물 간의 **갈등 양상 및 정치적 의도를 분석하는 문제**들이 주로 출제된단다. 특히 **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거나, 소재의 기능을 묻는 문제**, 그리고 **선조라는 인물의 비정한 통치술을 비판적으로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**가 자주 나오지.



선생님, 저는 이 부분에서 ‘길삼봉’이라는 존재가 잘 이해가 안 돼요. 실존 인물인가요, 아니면 가짜인가요?

아주 좋은 질문이구나! 극 중에서 **길삼봉은 실체가 불분명한 존재로 설정되어** 있단다. 정여립과 함께 반란을 꾀한 주모자로 거론되지만, 실제로 누구인지, 정말 존재하기는 하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지. 하지만 권력자들은 이 실체 없는 길삼봉을 이용해 반대파를 역적으로 몰아 숙청하는 명분으로 삼아. 즉, **길삼봉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권력이 만들어낸 허구적 명분**이지.



그렇군요. 그럼 인물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? 정철과 이산해가 싸우는 것 같아서요.

처음에는 정철이 위관이 되어 최영경을 길삼봉으로 몰아 동인 세력을 압박하지만, 나중에는 이산해가 정철의 필체가 담긴 서찰을 증거로 제시하며 정철을 몰락시키지. 중요한 건 **이들이 싸우는 동안 정작 백성들의 삶은 뒷전이였다는 점**이야. 최영경이 이들을 향해 “당쟁만 일삼으며 백성의 울부짖음에는 왜 대답이 없는가”라고 꾸짖는 대목이 바로 이 작품의 핵심 비판 지점이란다.





선생님, 저는 마지막 장면이 소름 돋았어요. 선조가 정철을 내쫓고 나서 또다시 이산해에게 길삼봉을 잡으라고 하잖아요.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?

예리하게 잘 포착했구나! 그 장면이 바로 선조의 냉혹한 통치술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부분이야. **선조는 신하들을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.** 정철을 내치고 이산해를 등용했지만, 다시 길삼봉을 잡으라는 엄명을 내림으로써 **공포 정치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지.** 결국 이 옥사는 누군가 길삼봉으로 지목되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**비극적 암시**를 준단다.



선생님, 마지막으로 희곡의 특징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?

희곡은 소설과 달리 **서술자가 없다는 점**을 명심해야 해. 대신 **인물의 대사**와 **지시문을 통해 상황과 심리가 전달**되지. 지시문은 인물의 성격과 태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니까 문제 풀 때 꼭 꼼꼼히 확인해야 한단다.



2027  
특강  
문학

## 2027 특강 국어 문학 1. 개념학습 5강 | 김삼봉던 지문 분석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### 지문 분석

[앞부분 줄거리] [ 동인인 정여립이 역모죄로 죽게 되자 선조는 정여립과 함께 거론된 반란의 주모자 김삼봉을 잡기 위해 서인인 정철에게 수사와 재판을 맡긴다. 무수한 동인의 선비들이 죄 없이 죽임을 당하나 김삼봉은 잡히지 않고, 심지어 그가 누구인지 실존하는지조차 불확실하다. 그러던 중 정철은 **처사**(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(草野)에 묻혀 조용히 살던 선비) 최영경을 김삼봉으로 의심해 체포한다. ]([ : 조선 봉당 정치의 대표적 비극인 기축옥사(정여립 사건)를 배경으로 함.)

**국청\***.(공간적 배경. 역적과 같은 중죄인을 신문하기 위한 공간임. 공간적 배경을 통해 암울한 분위기를 형성함.)

최영경이 자리해 있다. **코러스\*들이 최영경을 둘러싼다.**(최영경을 둘러싼 모습은 압박감을 주는 장치로서 기능함.) 술병을 손에 쥔 정철, **잔뜩 취해 있다.**(윗글을 이해한 학생들의 대화를 제시한 문제에서 '정철은 술에 취해 공초를 진행하는 등 위관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어.'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정철: **김삼봉 상장군**(정철은 최영경을 김삼봉이라고 단정함.)의 몰골이 형편없이 상했구려. 역시 그대의 **역당**(역적의 무리)은 그 뿌리가 깊소이다. 무고를 **주청**(임금께 아뢰어 청하는 일)하는 상소가 끝이 없으니 말시오.

최영경: (**호탕히 웃으며**)(최영경은 죄가 없으므로 떳떳한 태도를 보임. '지시문을 사용하여 인물의 행동과 표정을 나타내어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.'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 하하하. **없는 죄를 엮는 일**(정철의 행위에 대한 최영경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남.)이 여간 쉽지는 않으리다.

정철: **생사 앞에서 그리 담대한 것은 그대의 성품이오 기질이오?**(최영경이 담대함이 마음에 들지 않음.)

최영경: (음조리듯) **생사를 잊은 지 이미 수십 년이라.**(최영경은 세속적인 권력이나 생사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.'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정철: (비웃음) 과연 죽림층에 은거하는 **현자**(반어적 표현. 정철은 최영경을 비웃고 있음.)라는 소릴 들을 만하구려. 이황종의 서찰에 줄줄이 **시국에 대한 비분강개의 글**(당시 사회에 대해 비판하는 글)이 난무하던데. 그대 또한 **그(이황종)와 뜻을 같이하는가?**(서찰을 내보인다.)

최영경: (타령을 읊듯 태평하게) 혹은 **옳고 혹은 아니 옳고. 그대들의 쓸개 빠진 당파 싸움에 비분강개하는 마음은 그의 것이 나의 것이나**(최영경은 당파 싸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임.), **벼슬을 물린 것은 나의 도량이 그에 미치지 못함이오.**(최영경이 벼슬을 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능력(도량)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임. 최영경이 현재 벼슬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.)

정철: 죽림에 묻혀 현실 정치가 봉당의 패싸움입네 더러운 오물이네 하고 말하기는 쉬운 법이오.

최영경: (정색하며) [ 허먼 화려한 복색으로 궐을 출입하며, 사탕발림으로 임금의 귀를 어둡게 하고 당쟁만 일삼는 **그대들**(비판의 대상)은 **들판의 곡식을 일구는 농부의 땀을 알며, 배굼아 죽어 가는 아이. 병들어도 약한 번 씨 보지 못하는 노복의 처지**(실제 서민들의 삶)를 아는가?([ : 의문형 어미의 반복) 아니, 밤마다 피를 토하며 세상 끝날 날을 노래하며 텅구는 백성의 울부짖음에는 왜 대답이 없는가? 두 귀가 멀쩡한데 왜 귀를 처막고 있는가? ]([ : 당쟁만 일삼는 사람들은 정작 백성들의 삶에 신경 쓰지 않음을 비판함. '최영경은 정철의 위선을 비판하며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권력자들을 질타한다.'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정철: 뜻만 있으면 무엇 하오? 행함이 없으면 다 헛것인 것을.

최영경: 그대가 헛것을 논하다니 허허. **헛것(김삼봉)을 핑계 삼아 선비의 목을 치는 그대가.**(서인인 정철이 동인들을 신문하고 죽였음을 알 수 있음. 정철의 행위가 근거 없는 정치적 모략이라는 최영경의 생각을 드러냄.)

(중략)

- 김민정, 「**길삼봉면**(극 갈래로 서술자가 없고,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행동, 표정, 말투 등을 지시함. **희곡 갈래의 특징을 묻거나, 대사나 상황에 맞는 올바른 행동 지시문을 선택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**)」

나무아카데미 배포포포포

2027  
특강  
문학

2027 특강 국어 문학 1. 개념학습 5강 | 김삼봉던 기출 문제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【1~10】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[앞부분 줄거리] 동인인 정여립이 역모죄로 죽게 되자 선조는 정여립과 함께 거론된 반란의 주모자 김삼봉을 잡기 위해 서인인 정철에게 수사와 재판을 맡긴다. 무수한 동인의 선비들이 죄 없이 죽임을 당하나 김삼봉은 잡히지 않고, 심지어 그가 누구인지 실존하는지조차 불확실하다. 그러던 중 정철은 처사 최영경을 김삼봉으로 의심해 체포한다.

국청\*.

최영경이 자리해 있다. 코러스\*들이 최영경을 둘러싼다. ㉠술병을 손에 쥔 정철, 잔뜩 취해 있다.

정철: 김삼봉 상장군의 물골이 형편없이 상했구려. 역시 그대의 역당은 그 뿌리가 깊소이다. 무고를 주청하는 상소가 끝이 없으니 말시오.

최영경: ㉡(호탕히 웃으며) 하하하. 없는 죄를 엮는 일이 여간 쉽지는 않으리다.

정철: 생사 앞에서 그리 담대한 것은 그대의 성품이오 기질이오?

최영경: (웃소리듯) 생사를 잊은 지 이미 수십 년이라.

정철: (비웃음) 과연 죽림중에 은거하는 현자라는 소릴 들을 만하구려. 이항종의 서찰에 줄줄이 시국에 대한 비분강개의 글이 난무하던데. 그대 또한 그와 뜻을 같이하는가? (서찰을 내보인다.)

최영경: (타령을 읊듯 태평하게) 혹은 옳고 혹은 아니 옳고. 그대들의 쓸개 빠진 당파 싸움에 비분강개하는 마음은 그의 것이 나의 것이나, 벼슬을 물린 것은 나의 도량이 그에 미치지 못함이오.

정철: 죽림에 문혀 현실 정치가 봉당의 패싸움입네 더러운 오물이네 하고 말하기는 쉬운 법이오.

최영경: (정색하며) ㉢허면 화려한 복색으로 궐을 출입하며, 사탕발림으로 임금의 귀를 어둡게 하고 당쟁만 일삼는 그대들은 들판의 곡식을 일구는 농부의 땀을 알며, 배곯아 죽어 가는 아이, 병들어도 약한 번 써 보지 못하는 노복의 처지를 아는가? 아니,

밤마다 피를 토하며 세상 끝날 날을 노래하며 텅구는 백성의 울부짖음에는 왜 대답이 없는가? 두 귀가 멀쩡한데 왜 귀를 쳐막고 있는가?

정철: 뜻만 있으면 무엇 하오? 행함이 없으면 다 헛것인 것을.

최영경: 그대가 헛것을 논하다니 허허. 헛것을 핑계 삼아 선비의 목을 치는 그대가.

(중략)

선조: (화를 내며) 대체 김삼봉이 어떤 자이길래 최영경의 목숨까지 앗아 간단 말시오!

정철: ㉣송구하옵니다. 최영경이 김삼봉이라고 하기에 너무도 미력한 인물이온데, 옥사에까지 이르렀으니 신을 벌하시옵소서. 다만, 수많은 고변을 밝히고자 그리한 충정은 헤아려 주시옵소서.

이산해: 최영경을 김삼봉이라 무고한 이들이 모두 정철 대감의 수하임을 눈여겨보소서. 이 모든 것이 정철의 계략이옵니다.

정철: 천부당하옵니다. 신, 충심으로 옥사를 진행하였을 뿐, 죄 없는 자를 무고한 바 없사옵니다.

이산해: 충심을 다한다는 위관이 어찌 술에 취해 공초를 진행하였겠사옵니까? 정철을 당장 파직하옵소서.

정철: 전하, 신의 사사로운 허물을 들추어 어의를 흐리고자 하는 간계이옵니다.

이산해: 이 ㉤서찰 앞에서도 그런 무례한 말을 한 단 말시오?

이산해, 선조에게 서찰을 건넨다. 선조, 펼쳐 들고 보다 안색이 묘연해진다.

이산해: 최영경이 즉 김삼봉이라고 상소하면 벼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, 송강의 필체가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사옵니다.

정철: 아니옵니다, 전하. 모함이옵니다.

이산해: 어릴 적 문우였던 제가 어찌 송강의 필체를 모르겠나이까?

정철: 필체를 도색하는 것은 일도 아니옵니다. 일찍이 이산해는 정여립의 서간.

정철과 이산해의 눈이 불꽃이 될 듯 부딪친다.

선조: 위관, 그런데 정여립은 동인인가 서인인가?  
 정철: (머뭇대다) 전 우의정 정언신의 혈족이니 동인이라 할 만하옵니다.

선조: 최영경은 어떠하오?

정철: (사이) 초야에 은거하는 이가 동서의 구분을 알겠습니까?

선조: 그대를 동인 백정이라 하던데 어찌 생각하오?

정철: 천부당만부당하옵니다. 역모를 막고자 한 소인의 충정을 헤아려 주옵소서.

사이,

선조: 이산해 대감, 그대가 위관을 맡게. (지엄하게) 정철의 관직을 폐하고, 사가에서 위리안치\*하게 하라. 또한 최영경을 무고한 이들을 반좌율\*로 다스리라.

이산해: ㉠어지를 받들겠나이다.

정철: 전하, 이는 모함이옵니다. 전하, 전하!

선조, 이산해에게 웃음을 보인다. 이산해, 기쁨에 함께 웃는다.

선조: (갑자기 웃음을 거두며) 위관은 무얼 하는가? 길삼봉이 날뛰고 있지 않은가! 해가림\*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, 어서 길삼봉을 잡아들여라!

이산해: (놀라) 횃불을 밝혀라. 인두를 달구고, 고변된 자들을 끌고 와 형틀에 묶어라. 길삼봉을 잡으라는 어명이시다.

선조. 여유롭게 웃는다.

국청: 조선 시대에 역적 등의 중죄인을 신문하기 위해 설치하던 임시 관아

코러스: 연극에서 극 중 특수한 기능과 효과를 담당하는 역할을 이르는 말

무고: 아무런 잘못이나 허물이 없음.

고변: 반역 행위를 고발함.

무고한: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함.

위리안치: 유배된 죄인이 거처하는 집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가두어 두던 일

반좌율: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고발한 사람에게 고발당한 사람이 받은 처벌과 같은 형벌을 가하던 제도

해가림: 여기서는 '일식'을 뜻함.

- 김민정, 「길삼봉편」

## 1. 연출자가 ㉠ ~ ㉤에 대해 연기 지시를 할 때,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㉠: 술에 잔뜩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연기해 주세요.
- ② ㉡: 당당한 태도로 호탕하게 웃는 모습을 강조하여 연기해 주세요.
- ③ ㉢: 당쟁만 일삼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드러날 수 있도록 호통치듯 말해 주세요.
- ④ ㉣: 선조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말해 주세요.
- ⑤ ㉤: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강조될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로 말해 주세요.

## 2. 이 글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연극의 대본으로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다.
- ② 막과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.
- ③ 다른 갈래들에 비해 시간,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.
- ④ 무대 위에서 상연하기 때문에 등장인물 수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.
- ⑤ 서술자가 없는 갈래로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에 대한 서술자의 직접적 묘사가 불가능하다.

## 3. ㉠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.
- ② 극의 분위기를 더욱 희망적으로 만든다.
- ③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알려 준다.
- ④ 미래에 대한 희망적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.
- ⑤ 진행되고 있던 사건에 반전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다.

## 4.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인물 사이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며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.
- ② 공간적 배경을 국청으로 설정하여 비극적이고 엄숙한 분위기를 나타낸다.
- ③ 지시문을 사용하여 인물의 행동과 표정을 나타

내어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.

- ④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관객의 이해를 돕고 있다.
- ⑤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정치적 갈등 양상을 입체적으로 보여 준다.

**5.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?**

- ① 정철은 최영경을 길삼봉으로 단정하고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.
- ② 최영경은 세속적인 권력이나 생사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.
- ③ 이산해는 정철의 필체가 담긴 서찰을 증거로 제시하며 정철을 몰아세운다.
- ④ 선조는 서찰을 보고 정철을 파직하고 위리안치할 것을 명한다.
- ⑤ 최영경은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도량이 넓기 때문이라고 말한다.

**6. 윗글에 나타난 인물들의 관계와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**

- ① 최영경은 정철의 위선을 비판하며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권력자들을 질타한다.
- ② 정철은 이산해와의 문우 관계를 이용하여 위기를 모면하려 노력한다.
- ③ 이산해는 최영경의 억울한 죽음을 슬퍼하며 정철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한다.
- ④ 선조는 정철과 이산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판결을 내리려 고심한다.
- ⑤ 정철은 최영경의 학문적 깊이를 인정하며 그를 살려주기 위해 선조를 설득한다.

**7.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**

- ① 비속어와 은어를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.
-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.
- ③ 격식 있는 문체를 통해 인물의 신분을 드러낸다.

다.

- ④ 대화 사이에 방언을 섞어 써서 향토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.
- ⑤ 명사형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사용하며 긴박한 상황을 속도감 있게 제시한다.

**고난도 8. 윗글의 서사 구조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**

- ① 정철과 이산해의 상황이 대조를 이루며 극적 반전을 형성한다.
- ② 선조가 명령을 내리는 모습에서 신하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권력자의 모습이 드러난다.
- ③ 최영경의 발언은 당시 지배층의 부패와 무능을 비판하는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.
- ④ 코러스는 공간의 전환을 표현하며 관객에게 사건과 관련된 역사적 내용을 직접 전달한다.
- ⑤ 실존 인물과 허구적 상황을 결합하여 권력 투쟁의 비정함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한다.

**고난도 9. <보기>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**

<보기>

기축옥사(1589)는 정여립의 역모 사건을 계기로 서인 정철이 위관이 되어 수많은 동인들을 숙청한 사건이다. 이 과정에서 정철은 독단적인 수사로 '동인 백정'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. 하지만 이후 정철은 세자 책봉 문제로 선조의 눈 밖에 나 파직되고, 다시 동인 세력이 득세하게 된다. 이 극은 이러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희생되는 인물들과 권력의 속성을 다루고 있다.

- ① 정철이 최영경을 심문하는 장면은 서인이 동인을 숙청하던 당시의 서슬 퍼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군.
- ② 선조가 정철에게 동인 백정이라 부른다고 언급한 것은 정철의 과도한 수사에 대한 세간의 평판을 전달하는 장치이군.
- ③ 이산해가 정철의 필체를 도색한 것이라 주장하는 정철의 모습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

해 필사적인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는군.

- ④ 최영경의 죽음은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지식인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군.
- ⑤ 선조가 이산해에게 다시 길삼봉을 잡으라고 명령하는 마지막 장면은 옥사가 종결되었음을 암시하는군.

10. <보기>를 참고하여 윗글의 지시문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— <보기> —

희곡에서 행동 지시문(동작 지시문)은 배우의 움직임, 표정, 말투 등 무대 위 구체적 행동을 괄호나 별도 서술로 설명하는 글이다. 주로 현재형으로 작성되며, 대사 사이에 위치하여 인물의 심리와 극적 상황, 감정을 극대화하여 전달한다. 지시문은 배우에게 연기 방향을 제시하고 무대 위 상황과 극적 분위기를 구체화한다. 또한 대사만으로 표현하기 힘든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.

- ① 정철의 (비웃음)은 최영경의 고고한 처하는 태도에 대한 냉소적 반응이다.
- ② 최영경의 (타령을 읊듯 태평하게)는 죽음을 초탈한 인물의 심리적 여유를 나타낸다.
- ③ 이산해의 (놀라)는 선조의 명령에 당황한 이산해의 태도를 드러낸다.
- ④ 선조의 (화를 내며)는 충직한 신하 최영경을 잃은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슬픔의 표현이다.
- ⑤ 정철의 (머뭇대다)는 선조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해 당황하는 정철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.

## 정답 및 해설

### 1. [정답] ⑤

이산해가 위관을 맡아 기쁨에 웃는 장면이 이어지기 때문에 '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강조'되어야 한다는 연기 지시는 적절하지 않다.

① 잔뜩 술에 취해 있는 정철의 모습을 연기해야 하므로 '비틀거리며'라는 연기 지시는 적절하다.

② 죄가 없는 최영경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'당당한 태도로 호탕하게 웃는 모습'이라는 연기 지시는 적절하다.

③ 당쟁만 일삼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'분노가 드러날 수 있도록 호통치듯'이라는 연기 지시는 적절하다.

④ 정철이 자신의 죄라고 말하는 부분이므로 '고개를 숙이며'라는 연기 지시는 적절하다.

### 2. [정답] ④

희곡은 무대 위에서 상연하기 때문에 등장할 수 있는 인물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. 따라서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을 크게 받는다.

① 이 글은 희곡으로 연극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다.

② 희곡의 경우 극의 전체적인 구조를 나누는 막과 막 안에서 무대 배경이나 인물의 출입이 있을 때 나누는 작은 단위인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.

③ 희곡은 무대 위에서 상연하기 때문에 시간, 공간적 제약을 가장 많이 받는 갈래이다.

⑤ 희곡은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술자의 직접적 묘사가 불가능하다.

### 3. [정답] ⑤

서찰로 인해 위관직을 맡아 선비들을 신문하던 정철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위리안치를 당하게 된다.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반전이 일어나는 계기로 볼 수 있다.

① 사찰은 정철이 관직을 박탈당하고 위리안치를 당하게 되는 계기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.

② 동인뿐만 아니라 서인인 정철 역시 관직을 박탈당하고 위리안치를 당하는 모습을 통해 극의 분위기를 더욱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.

③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모습은 제시되지 않는다. 되려 정철과 이산해의 갈등이 드러난다.

④ [매력적인 오답] 미래에 대한 희망적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는다. 이후 이산해에게 길삼봉을 잡으라는 선조의 모습에서 더 많은 선비들이 희생될 것을 알 수 있다.

### 4. [정답] ④

희곡은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으며, 인물의 대사와 행동(지시문)을 통해 심리와 성격이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갈래이다.

① 정철과 최영경, 정철과 이산해의 대립적인 대화를 통해 극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.

② 국청이라는 공간은 죄인을 심문하는 장소로, 인물의 생사가 오가는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한다.

③ (호탕히 웃으며), (정색하며) 등의 지시문은 인물의 심리나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.

⑤ 기축옥사라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정철, 이산해, 선조 등의 인물 간 갈등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.

### 5. [정답] ⑤

최영경은 벼슬을 물린 것이 자신의 도량이 그(이황종)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. 따라서 자신의 도량이 넓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.

① 정철은 최영경을 향해 길삼봉 상장군이라 부르며 그를 역당의 우두머리로 취급한다.

② 최영경은 생사를 잊은 지 이미 수십 년이라 말하며 죽음 앞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여 준다.

③ 이산해는 정철이 벼슬을 미끼로 무고를 사주했다는 내용의 서찰을 선조에게 전달한다.

④ "정철의 관직을 폐하고, 사가에서 위리안치하게 하라"에서 알 수 있다.

### 6. [정답] ①

최영경은 껌을 출입하며 당쟁만 일삼는 이들이 백성의 울부짖음에 답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정철

의 태도를 지적한다.

② 이산해가 정철과 문우였음을 언급하며 그의 필체를 알아본다고 주장할 뿐, 정철이 이를 이용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.

③ 이산해는 정철을 권력에서 몰아내기 위해 무고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지 최영경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.

④ 선조는 정철을 내치고 이산해에게 다시 길삼봉을 잡으라고 명령한다.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하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.

⑤ 정철은 최영경이 길삼봉이라 하기엔 미려한 인물이라고 말하긴 하지만, 이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미 최영경은 감옥에서 죽었으므로 그를 살려주기 위함이 아니다.

7. [정답] ③

위관, 충정, 반좌율 등 유교적 정치 질서와 관련된 용어와 격식 있는 어투를 통해 조선 시대 사대부와 왕실 인물임을 드러낸다.

① 지문에서 비속어나 은어의 사용은 나타나지 않는다.

② 정철이 비웃음을 섞어 말하긴 하지만 상대의 의견에 동조하기 위한 반어법은 아니다.

④ 배경이 국청인 만큼 방언을 통한 향토적 분위기 형성과는 거리가 멀다.

⑤ 인물들의 대사는 대부분 문장 형태로 끝맺어지며 명사형 종결 어미가 반복된 것은 아니다.

8. [정답] ④

지문에서 코러스는 최영경을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로 등장할 뿐, 공간 전환을 표현하거나 기축옥사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은 아니다.

① 정철이 파직되고 이산해가 위관을 맡게 되는 과정에서 극적 반전이 나타난다.

② [매력적인 오답] 정철(서인)에게 수사를 맡겼던 선조가 다시 이산해(동인)에게 정철의 처벌을 명하는 모습에서 신하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권력자의 모습이 드러난다.

③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당쟁을 비판하는 최영경의 대사는 작품의 비판적 주제를 명확히 한다.

⑤ 기축옥사의 실제 인물들을 등장시켜 정치적 암

투라는 비정한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.

9. [정답] ⑤

마지막 장면에서 선조는 이산해에게 다시 길삼봉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하며 새로운 옥사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.

① 기축옥사 당시 서인이었던 정철이 동인 측 인물들을 가혹하게 수사했던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.

② [매력적인 오답] 동인 백정이라는 별명이 정철이 수많은 동인들을 가차 없이 처벌했음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표현이다.

③ 자신의 필체가 담긴 서찰이 발견되자 이를 조작된 것이라 부정하는 정철의 모습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.

④ 실제 역사에서도 무고하게 죽음을 맞이한 최영경은 봉당 정치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다.

10. [정답] ④

선조가 화를 내는 것은 최영경의 죽음 자체를 슬퍼해서라기보다, 정철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거나 상황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로 해석할 수 있다. 최영경의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.

① 정철은 속세를 떠난 현자라는 소리를 듣는 최영경을 비꼬며 비웃고 있다.

② 최영경은 국청에서 신문을 당하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타령을 읊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담대함을 유지한다.

③ 정철을 몰아내고 기뻐하던 이산해는 다시 길삼봉을 잡으라는 선조의 엄명에 놀라는 기색을 보인다.

⑤ 정여립의 당파를 묻는 선조의 질문에 정철이 머뭇거리는 것은 자신의 입지가 불안해졌음을 느껴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정철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.